

01 교회소식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기독 문화

마음에서 울려나오는 찬양과 무용,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혼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주는 우리 교회 예능위원회.

02 생명의 말씀

열 므나의 비유

므나는 영적으로 성령을 뜻한다. 성령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욕을 버리고 영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한다.

03 기획특집

온전한 중심을 이루는 비결

'정도'를 걷는 온전한 중심을 이루려면 번개함과 간사함이 없어야 하며, 욕심을 좇아 정욕을 채우지 않는 마음이 돼야 한다.

04 간증

“제 삶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게임 중독에서 벗어난 일본 타구치 토시히로 형제와 나팔관이 막혔으나 당회장님 기도로 잉태해 득남한 이흥매 집사 간증.

만민뉴스

제651호 2014년 9월 14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영육 간에 겸비한 차세대 인재 양성에 주력하는 예능위원회



우리 교회 예능위원회는 매년 부활절 공연, 교회 개척 및 창립 축하 공연, 성탄절 공연 등 교회 행사는 물론 해외 연합대성회, 목회자 세미나, 손수건 집회(행 19:11~12) 등 각종 해외 집회 때 영감 있는 공연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독 문화 선교를 활발히 이루고 있다(사진 아랫줄은 중·고등학생으로 조직된 예능팀 단비중창단, 미라를 주니어, 만민국악선교단, 아향선교단, 오로라워십팀, 맑은소리중창단).

예능위원회(위원장 이희진 목사)가 교회 창립 32주년을 맞아 전야제 공연 '새 예루살렘 목자의 성' 및 기념 공연 '초대장' 준비에 한창이다.

천국 새 예루살렘 성 아름다운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공연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곡에 맞춘 연합찬양팀과 닥시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 예능팀들의 무용으로 큰 은혜와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수정같이 맑고 아름다운 찬양과 다양한 장르의 예능위원회 공연은 해마다 교회 창립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성도들은 물론, 국내외 내민들에게 극찬을 받아왔다.

특히 미국, 러시아, 인도, 케냐, 이스라엘 등 세계 곳곳에서 수십, 수백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개최된 이재록 목사 초청 해외 연합대성회 때에도 한국 고전 무용과 각 나라의 전통 무용, 현지어 및 다국어 찬양으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기여해 왔다.

예능위원회는 임마누엘, 샬롬, 나사렛, 금빛, 흰돌 등 5개 성가대와 닥시오케스트라,

25개 예능팀과 솔리스트로 구성돼 있으며 천여 명의 성도가 소속돼 있다.

자신의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자원한 성도들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 수준급의 독보적인 작품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전폭적인 후원과 기도로 영육 간에 큰 성장을 이루는 한편, 인재 양성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교회 부설 유아교육기관인 만민선교원과 연계해 예능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함과 동시에 중·고등학생들도 예능팀 활동을 통해 차세대 일꾼들로 나오고 있다.

현재 여성 중창에 '단비중창단'과 '맑은소리중창단', 한국 무용에 '아향선교단', 워십에 '오로라워십팀', 연주에 '미라를 주니어', 찬양과 고전 무용, 국악기 연주를 종합한 '만민국악선교단'은 예배 때 특송을 통해 맑고 고운 향으로 성도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쳐 사랑을 받고 있다.

만민국악선교단 소속 전예진 자매는 “성도님들이 은혜받았다고 칭찬해 주셔서 기쁘고 행복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마음을 이루고 실력도 갖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팀이 되고 싶어요.”라고 했다.

맑은소리중창단 소속 신수현 자매는 “열심히 연습해서 하나님께 특송을 드리고 나면 마음이 아주 기쁘고 행복해요. 장차 교계 및 해외 집회 때 찬양으로 영혼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날을 꿈꾸며 영육 간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개인 레슨과 함께 이론 수업도 병행하며 기량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매주 정기 연습을 통해 앙상블을 익히고 특송을 통해 무대 감각도 습득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예능위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전문 예능팀들의 경우에는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개인 및 팀

전체의 기량을 향상시키고 있다.

찬양팀은 개인 레슨은 물론 화성학, 시창, 청음, 피아노 실기 수업과 한국 무용, 워십, 재즈 댄스 등을, 무용팀은 전문 강사의 수업과 함께 한국 무용, 발레, 워십, 재즈 댄스, 요가, 아크로바틱, 리듬체조 등 다양한 분야를 배우고 있다.

예능위원회 총무 이진 집사는 “예능위원회는 세계를 향해 만민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능 사역을 알리고, 전 세계 기독 문화를 리드하는 최고 수준의 인재를 양성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성전 시대에 맞춰 쾌적하고 전문적인 교육 시설을 갖추는 것은 물론, 향후 예능위원회 내에서 배출된 최고의 강사진들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기독 문화를 뚜렷이 구축해 나가기를 소망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마지막 때 외와 어둠으로 물든 국내외 문화예술계를 깨우고,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참 빛 되신 주님을 전하는 만민의 예능위원회의 활약을 기대한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온 열 므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나라 ...”
(누가복음 19:11~27)

열 므나의 비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 승천하셨지요. 그런데 열 므나 비유는 달란트 비유와 달리 “그 종 열을 불러 온 열 므나를 주며” 했습니다.

‘므나’는 달란트의 60분의 1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영적으로는 성령을 뜻합니다. 므나를 열 사람이 하나씩 똑같이 받은 것처럼,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동일하게 한 성령을 받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영적인 재능 곧 믿음, 소망, 사랑에 따라 어떤 사람은 두 달란트, 어떤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받을 수 있지요. 그러나 열 므나 비유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한 므나씩만 받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한 므나씩을 나눠 준 귀인은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 주셨지요. 이처럼 비유와 실제 순서가 바뀐 것 같지만 여기에는 영적인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열 므나 비유의 말씀에서는 왜 귀인이 므나를 준 다음에 왕위를 가지러 먼 나라로 갔다고 표현한 것일까요? 여기서 왕위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왕위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왕위를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부활해 이미 왕위를 얻으셨지만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아직 왕위가 회복되지 않았지요.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는 됐지만, 원수 마귀 사단이 주관하는 이 세상에서 인간 경작을 받으며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경작을 마치고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의 왕위는 회복되지요.

2.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는 말씀의 의미

누가복음 19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는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으로 장사하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했습니다. 자기의 소유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

욕과 이성의 자랑 등 육적인 것을 말합니다. 육에 속한 것을 팔아 버리는 만큼 좋은 마음 밭이 되고 무엇을 심든지 좋은 열매를 거두며, 또한 영으로 일군 만큼 좋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 안에 있는 육을 버리고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영적 의미의 장사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영적인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즉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죄를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요(요 16:8 ; 롬 8:26).

따라서 ‘므나’ 곧 성령으로 장사한다는 뜻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 안의 죄성과 육을 벗어 내고 마음을 영으로 일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3.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주님

누가복음 19장 15절 이하를 보면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종들이 어떻게 장사했는지 묻습니다. 한 종은 ‘한 므나로 열 므나를 남겼다’ 하니 잘했다고 칭찬하며 열 고을을 차지하는 권세를 주십니다. 다른 종은 다섯 므나를 남기니 칭찬은 하지 않고 다섯 고을만 차지하라고 하시지요.

그러면 한 므나로 열 므나를 남긴 것과 다섯 므나를 남긴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열 므나를 남긴 사람은 성령을 받아 육체의 일, 육신의 일을 다 벗고 온전히 성결을 이뤘으므로 주님께서 칭찬하시며 열 고을을 주신 것입니다.

‘열 고을’이란 땅의 지경을 말합니다. 열 므나를 남긴 사람 즉 성결 된 사람이 차지하는 천국의 땅은 바로 3천층 이상을 가리키지요. 성결 된 사람은 3천층에 들어갈 수 있고, 나아가 온 집에 충성하면 3천층 중심부에 위치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섯 므나를 남긴 사람에게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신 것은 그가 50% 이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이지요.

마지막으로 한 므나를 가지고만 있던 사람은 “주의 한 므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눅 19:20)라고 말합니다. 그는 아예 장사할 생각도 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었고 당신이 얽한 사람이라

무서워서 그랬다고 변명합니다. 주님께서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얽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눅 19:22)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을 받고도 죄를 싸워 버리지 않고 육체의 일, 육신의 일을 행하는 악인을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환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치셨다고 하지요. 이것이 한 므나를 받았으되 장사는 하지 않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4.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수님께서 악한 종에게서 한 므나를 빼앗아 열 므나 있는 자에게 주라 하시며 누가복음 19장 26절에 “...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므나를 받아 열 므나를 만든 사람 즉 성령을 받고 죄를 온전히 버린 성결한 사람은 어찌하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충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에 응답하시며 풍성한 축복을 주시지요. 반면에 악한 사람은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려 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말씀이 찔림이 돼 ‘또 나를 두고 하는 말씀이구나!’ 판단하며 불편해지지요.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 악 속에서 성령의 소욕을 좇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좇아가면 성령이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살전 5:9).

이어지는 누가복음 19장 27절에는 예수님께서 “나의 왕 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아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원치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이들은 결국 죽임을 당하는데, 바로 영적 사망의 형벌을 받아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총을 입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열 므나 이상을 남기기까지 성령으로 열심히 장사해 성결을 이룬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고 비유를 통해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중 열 므나 비유와 달란트 비유는 흔히 동일하게 여기는데, 이 둘의 영적 의미는 각각 다릅니다. 달란트 비유는 영적인 재능을 가지고 얼마나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에 따라 장차 주님께 인정받는 척도가 달라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열 므나 비유에는 어떤 영적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1. 열 므나 비유의 영적 의미

누가복음 19장 12절에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귀인’이란 예수님 자신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이 세상의 어떤 권세자나 부한 사람보다 가장 귀한 분입니다. 또 아직 십자가의 십리를 이루시기 전이므로 ‘구세주’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떤 귀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아무 죄 없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신 후에는 성도들의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6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팀(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 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시열차!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정도’(正道)를 걷는 온전한 중심을 이루려면?

잠언 10장 9절에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리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말씀하고 있다.
바른 길 곧 정도(正道)를 걷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지키고 인도하시니 큰 평안과 축복이 따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도에서 벗어날 때는 결국 불의가 드러나 수치를 당하게 되고 악행의 도움을 받게 된다. 과연 ‘정도’를 걷는 온전한 중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변개함이 없어야 한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정도를 좇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변개함이 없는 중심을 가진 것을 알 수 있다. 한 예로 사육신(死六臣: 조선 세조 때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 잡혀 죽은 여섯 명의 충신)들은 자신뿐 아니라 삼족이 죽임을 당한다 해도 결코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임금과 나

라에 대한 충절을 끝까지 지켰다. 성경에도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 쫓기는 신세가 됐어도 많은 신하와 백성이 다윗을 저버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하며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신의를 지키는 길을 택한 이들에게 생명을 구해

주실 뿐 아니라 자자손손 후대까지 영광을 누리게 하셨다. 시편 106편 3절에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한 대로 정녕히 하나님 앞에 정도를 걸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범사에 축복이 임한다.

간사함이 없어야 한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말씀한 대로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간사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처음 계획한 대로 행하지 않고 변개하는 것은 물론, 충성하는 듯하다가도 배신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통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했다. 데마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표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세상을 사랑해 사도 바울을 떠난 것이다. 이는 곧 주를 버

리고 구원에서 떠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정함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유혹에도 쉽게 빠질 수 있으므로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좇아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편벽되어 행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이나 자신에게 한 약속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다.

욕심을 좇아 정욕을 채우지 않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다. 사람의 육적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령, 자신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주어졌다고 하자. 많은 사람이 자신에게 좋은 말, 좋은 일에 대해서는 쉽게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좋은 것이라고 해서, 당장 유익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항상 진리로 분별해 진리에 맞지 않을 때는 비록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과

감히 버리고 좇지 않는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패전시킨 연합군을 뒤쫓아 그들을 쳐서 파하고 모든 빼앗긴 재물과 사람들, 사로잡힌 조카 롯을 되찾아 온 적이 있다. 이때 아브라함을 마중 나온 소돔 왕이 사람은 자신에게 보내고 물품은 아브라함이 취하라고 한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욕심에 끌린 것이 아니라 어떤 편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생각했다. 그래서 소돔 왕에게 “천지의 주재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오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케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

은 무론 한 실이나 신들메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했다(창 14:22~23). 곧 자신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할까 하여 소돔 왕으로부터 한 가지도 재물을 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아내 사라가 죽은 후 그 매장지를 살 때에도 그 땅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거저 주겠다는 것을 굳이 합당한 가격을 주고 사는 것을 볼 수 있다(창 23장). 바로 후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온전한 중심을 보시고 물질의 축복을 크게 주셨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도 주셨다.

세상에서는 착하고 순진하면 오히려 손해 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주 안에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도의 길을 간다면 만사형통의 길, 마음의 소원과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이럴 때 가는 곳마다 원수 마귀 사단의 진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역을

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므로 그가 형통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정도를 좇은 요셉이 점점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았어도 결국은 그 길이 왕 다음 가는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모와 형제, 칠십 인을 구원하며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를 마련하는 지름길이었다. 따라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떤 지

위를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정도를 걸어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형통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하신 대로 정도를 걷는 온전한 중심을 이루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축복이 삶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기를 바란다.

GCN 주요 프로그램 안내 9.14~9.20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9 2014 September

이재욱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성령의 9가지 열매 6-9
- 창세기 강해 34-38 * 축복 6
- 보배중의 보배는 믿음
- 요한계시록 강해 29 * 예언 1
- 온전한 심일조와 헌물 1-3
- 십계명 3-7 * 사랑 4-5
- 신앙생활 쉽게하기 1

GCN TV설교

- 악을 미워하는 것 3 (이수진 목사)
- 게으른 자/ 기도 (이미영 목사)
- 눈물의 열매 2 (이미영 목사)
- 영의 세계 1-2 (이화선 목사)
- 생명수 3-4 (신동초 목사)
- 열재앙 (정구영 목사)
- 보석같은 마음 (김수정 목사)

예능 프로그램

- 즐거운 요리 16
- 옛날 옛적에 8
- 모두 드려요 14
- 흥겨운 소리 7
- English 11
- 만민지킴이 9
- 찬양 드려요 27
- 알콩달콩 아여쁜 율동 22
- 몽도 린튼 마음도 린튼 35
- 뷰티풀 라이프 8
- 플로리스트 6
- 항기 27

해외성회 및 교육

- 온두라스 연합대성회 1
- 2014 지역장, 조장, 구역장 교육 5-6
- 회상 14

1577-2073

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

※ 방송사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집에 있는 게임기로 시작된 게임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학교에 갔다 집에 돌아오면 게임하기에 바빴지요. 점점 빠져들어 급기야 열아홉 살 때에는 게임 중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가족과 대화가 없고, 말투도 거칠어졌습니다. 부모님과 마찰도 잦았지요. 이로 인해 스무 살 때 취업은 했지만 사람들과의 소통 방법을 몰라 3개월 만에 직장을 그만 두게 됐습니다. 재취업 자리를 물색하기보다 바로 이때라는 듯이 다시 게임에 몰두했지요.

늘 제 머릿속에는 '어떻게 좋은 게임 장비를 구해 효율성 있게 레벨을 올릴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종일 게임만 했고, 어떤 때는 약 40시간 동안 잠도 자지 않고 한 적도 있었지요.

2006년 3월, 아버지의 권유로 교회를 다녔지만 게임하는 것은 여전했습니다. 교회 모임 중에도 휴대용 게임기를 가지고 게임을 하기도 했고, 주일 예배에 늦게 가거나 아예 가지 않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다시 취업을 한 후에는 한 달간 교회에 나가지 않은 적도 있지요. 하지만 이 직장도 오래 다니지 못했습니다.

2012년 1월, 교회 한 형제가 한국의 이재록 목사님 설교 말씀이 매우 좋으니 들어보라고 권했습니다. 그 형제도 많은 은혜를 받고 있다고 했지요.

저는 만민중앙교회 홈페이지(www.manmin.org)를 통해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성경의 깊이 있는 말씀을 명쾌하게 풀어 주시는 것에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참된 성경의 해석이다.'라고 생각하며, 그때부터 하루에 한 편 이상 설교 말씀을 들으며 변화되기 위해 기도했지요. 저는 이 성경의 복음을 전해 주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해 11월, 제가 살던 애히메켄 마츠야마 시에서 다섯 시간이나 걸려 오사카만민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처음 만난 이창미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저를 아주 반갑게 맞아 주셨지요.

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확실히 변화된 삶을 살고 싶었기에 오사카만민교회로 올 때에 모든 게임기와 게임소프트를 두고 왔습니다. 지금은 텔레비전도 없고, 게임기도 없으며, 인터넷도 연결돼 있지 않지만 저는 주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결의 복음으로 게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타구치 토시히로 (일본 오사카만민교회, 31세)

이것이 참된 성경의 해석이다.'라고 생각하며, 그때부터 하루에 한 편 이상 설교 말씀을 들으며 변화되기 위해 기도했지요. 저는 이 성경의 복음을 전해 주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해 11월, 제가 살던 애히메켄 마츠야마 시에서 다섯 시간이나 걸려 오사카만민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처음 만난 이창미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저를 아주 반갑게 맞아 주셨지요.

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확실히 변화된 삶을 살고 싶었기에 오사카만민교회로 올 때에 모든 게임기와 게임소프트를 두고 왔습니다. 지금은 텔레비전도 없고, 게임기도 없으며, 인터넷도 연결돼 있지 않지만 저는 주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성수를 하며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다음 달에 교회 가까이 집을 얻게 해 주셨고, 3개월 후에는 컴퓨터 관련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스무 살 때부터 10년 가까이 제대로 직장생활을 하지 않았기에 제 형편으로는 취업이 어려

운 실정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노력한 것 뿐인데, 신속히 축복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매년 겨울이 되면 손이 터서 동상에 걸리거나 피부가 갈라졌습니다(아래 사진). 심할 때는 양손가락 10개가 심하게 부어서 손가락을 구부리면 피부가 갈라지고, 조금만 물건에 닿아도 통증이 매우 심했습니다.



매년 어떻게 해서든 손이 트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음식이나 운동 등 좋다는 것은 다 해보았지만 효과가 없었지요. 그런데 성경의 복음을 들으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 한 번도 손이 트지 않고 건강하게 겨울을 날 수 있었습니다.

치료받은 손으로 기타 반주를 하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제 마음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또한 주일학교 교사인 저는 학생들이 저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제 간증을 하며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의 변화된 모습에 부모님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직장생활을 하며 건강한 삶을 사는 저를 대견해 하시며 제가 보고 싶어서 오사카에도 자주 오시지요.

성결의 복음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양측 나팔관이 막혀 자연 임신이 불가능했는데 기도를 받고 아들을 낳을 수 있었어요”

2011년 8월, 저는 결혼 2년 만에 겨우 임신이 됐지만 한 달 후 자연유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자궁이 약하다고 했습니다. 실망도 컸지만 유산후유증으로 인해 몸에 힘이 없고 빈혈 증세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요.

그러던 10월, 맹구속 집사님을 통해 만민중앙교회를 알게 됐습니다. 집사님은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로 많은 사람이 잉태의 축복, 건강의 축복을 받고 있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제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었지요.

교회에 간 첫날 제 마음은 평안했고, 이렇게 시작한 신앙생활은 즐거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 계신 증거들을 매주 보고 들으면서 제 믿음도 자라기 시작했고, 유산후유증도 사라졌지요. 잉태의 축복도 받을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작년 10월, 교회에 다니지 않는 남편은 큰 병원에 가서 정확

한 검사를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강남의 큰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남편은 이상이 없는데 제가 양측 나팔관까지 막혀서 이제에는 자연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시험관 시술을 권했고 남편은 그달 말일로 수술 날짜를 잡았지요.

이러한 상황이 되자 제 마음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하나님께 잉태의 축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10월 13일, 저는 산상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신 당회장님께 기도를 받았습니. 2주 후 몸에 이상을 느낀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병원에 갔지요. 검사 결과, 임신이었습니다. 양측 나팔관이 막혀 자연 임신이 불가능해 시험관 시술을 앞두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의 소원을 극적으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지난 7월 10일, 저는 3.6kg의 건강한 아들을 순산했습니다. 할렐루야!



이흥매 집사 (중국 1교구, 32세)

국내 지교회, 지정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4182-419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백성 B/D 7층 ☎051)326-1537, 010-7213-6207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동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말양만민교회 경남 말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층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도로 529-32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로22길 27,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 76번길 45-1 ☎054)748-5777, 010-3747-577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구미만민교회 경북 구미시 백률로 409-15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여수만민성결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익산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춘천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순환대로 637, 2층 ☎033)261-4217, 010-2759-7017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 제주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복부자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4201 2073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 결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430-3312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
- 강동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430-331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